



무주군과 경북 김천시, 충북 영동군이 함께 하는 제31회 삼도봉 만남의 날 행사가 지난 10일 무주군 설천면 미천리 해발 1176m 삼도봉 정상 대화합기념탑에서 개최됐다.

지역경계 넘은 화합대잔치

무주군·김천시·영동군 삼도봉 만남의 날 행사

무주군과 경북 김천시, 충북 영동군이 함께 하는 제31회 삼도봉 만남의 날 행사가 지난 10일 무주군 설천면 미천리 해발 1,176m 삼도봉 정상 대화합기념탑에서 개최됐다. 무주문화원(원장 팽갑삼)이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황인홍 무주군수와 김충섭 김천시장, 김창호 영동군 부군수를 비롯한 세 지역 주민 등 1천여 명이 참석해 삼도 화합의 의미를 더했다.

오전 산행 후 정오부터 진행된 삼도 화합 기원제는 초헌례와 아헌례, 종헌례순으로 진행됐으며 2부 부대행사로 는 국악인 강수빈 씨의 소리와 해금연주가 정은정 씨의 공연이 펼쳐져 호응을 얻었다. 무주군민 유 모 씨(44, 무주읍)는 "산이 경사도 심하고 돌도 많아서 올라오기가 힘들었는데 정상에 서고 보니 오길 참 좋았다 싶다"라며 "다른 지역끼리 오랜 인연을 가지고 꾸준한 만남을 가져오기가 쉽지 않은데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삼도봉 만남의 날 행사는 1989년 무주군의 제1회 시작돼 올해로 30회를

맞았으며 무주와 김천시(문화원장 정근재), 영동군 문화원(문화원장 배광식)이 교차 주관하며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 삼도봉의 인연은 공동사업에 대한 성과로도 나타나 다른 지역의 부러움을 사고 있기도 하다. 세 지역은 산골마을 의료·문화행복버스(보건의로 서비스 &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 제공)는 2017년 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로 선정된 바 있으며, 오지마을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등의 지역협력 사업 등도 추진해 2016년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로부터 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무주=전문선기자

진안홍삼축제 관광객 '복적'

13일까지 마이산복부 일원

2019 진안홍삼축제가 지난 9일 백세인생, 천년기운, 진안홍삼이라는 주제로 마이산 북부 일원에서 시작했다. 개막 첫날인 9일에는 화창한 날씨와 함께 가을을 만끽하려는 가족, 연인 단위의 수많은 인파가 축제장에 물리면서 성공적인 축제의 시작을 알렸다. 특히 기억력 홍삼 캔생기와 항산화 홍삼금척낙시, 면역력 UP 홍삼하우스 등 스태프투어와 관련된 프로그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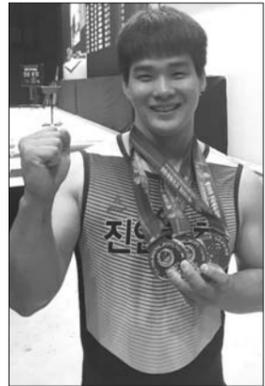
전국 유일의 홍삼연구소에서 진행되는 연구소 직업체험 등에 가족단위 관광객들이 많이 참여했다. 또한 지역 주민들이 손수 만든 '홍삼파우치'와 '건강꽃이피었습니다', '홍삼인형' 등 다양한 기념품들 또한 관광객들의 눈길을 끌며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저녁에는 한류스타인 모모랜드, 아스트로 등의 축하공연으로 축제 개막 분위기를 한껏 끌어 올렸다. 축제장을 찾은 한 관광객은 "다른 축제장에서 체험 할 수 없었던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어 신선

했다."며, "세계적인 명산 마이산을 배경으로 홍삼의 효능을 알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자연스럽게 홍삼의 우수성을 알게 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홍삼축제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올해 축제를 위해 심혈을 기울였는데 개막 첫날부터 많은 분들이 오셔서 축제장을 빛내주셨다"며 "축제가 끝나는 13일까지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19 진안홍삼축제는 △11일 노라조와 함께하는 홍삼노래자랑 △12일 트로트페스티벌 △13일 전국가요 TOP 10 등 문화공연과 홍삼을 최대 50%까지 할인된 금액에 구매 할 수 있는 홍삼 대방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청 유동주, 체전 역도 89kg급 3관왕

박민호, 81kg급 인상서 동메달 따내

한국역도의 간판, 유동주(진안군청·26) 선수가 제100회 전국체전 역도 89kg급에서 3관왕에 올랐다. 유동주 선수는 지난 9일 올림픽 역도경기장서 열린 인상 종목서 165kg을 들어 올려 금메달을 따내 이어 용상에서도 199kg으로 우승했다. 유동주는 합계 364kg으로 3관왕이 됐다. 유동주 선수는 2016년 전국체전부터 올해까지 총 11개의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또한 내심 금메달을 기대했던 81kg급 박민호(25세) 선수는 컨디션 난조로 인상에서 동메달에 그쳤다.



유동주 선수

국내를 평정한 유동주 선수의 다음 목표는 내년 도쿄올림픽이다. 지난 9월 열린 세계선수권대회에서 6위에 그친 유동주 선수는 체중을 늘려 96kg급 메달에 도전한다. 물론 아직 남자 96kg급 세계정상권과는 거리가 있다. 많은 전문가가 합계 390kg을 들어야 올림픽 메달을 장담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어 본인 최고기록보다 20kg 이상을 더 들어 올려야 한다. 유동주 선수는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해준 최성용 부군

수님과 감독님께 영광을 돌린다. 도쿄 올림픽을 목표로 체중과 기록을 동시에 늘릴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최병찬 감독은 "근력과 스피드, 유연성을 고루 갖춘 선수로 세계 정상에 오를 수 있도록 지도에 더욱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진안군은 유동주 선수에게 연봉 옵션 2000만원과 포상금 4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매아리

장수 축제관련행사 사진 공모전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장수지부가 '제1회 장수군 축제관련행사 전국 사진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장수군의 축제 행사장이나 자연경관을 촬영한 미발표 작품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1인당 4점(11×14인치 규격)까지 출품할 수 있으며, 11월 12일까지 한국사진작가협회 장수지부로 우편 또는 방문접수 할 수 있다. 접수된 작품은 11월 16일 공개심사를 통해 입상자를 결정하고, 12월 6일 시상식 및 전시회를 가질 예정이다. 입상자에게는 금상은 장수군수상과 상금100만원, 은상은 장수군의회위원장상과 상금50만원, 동상은 한국사진작가협회 장수지부장상과 상금30만원, 가작은 한국사진작가협회 장수지부장상과 상금20만원, 입선은 한국사진작가협회 장수지부장상과 상금 10만원을 수여하고, 한국사진작가협회 입회접수도 주어진다. /장수=고판호 기자

무주 태권브이랜드 조성 촉구 무주군의회, 건의문 채택

무주군의회(의장 유송열)가 지난 8일 제273회 임시회에서 '무주 태권브이랜드 조성 사업 추진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건의문을 대표발의한 유정훈 행정복지위원장은 "대한민국 국기로 지정된 태권도는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무예로 호국무술의 근간이 되었으며 가장 위대한 유산"이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태권도를 국민들이 더 가까이에서 이용하고 즐길 수 있도록 콘텐츠를 개발하고, 태권도마케팅을 통해 대표관광지 부가산업을 육성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무주는 세계 태권도 중심 도시로써 성장하기 위한 중장기적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며, "무주 태권브이랜드 조성사업은 무주가 태권도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첫 관문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를 위해 무주군의회는 관련 부처에 △태권도 관련 종합 발전 계획 수립 추진 △태권도관련 핵심 단체의 국립태권도원으로의 이전 △민자유치추진사업의 조기 추진 등을 통한 태권도원 주변 활성화 등을 촉구하였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국회,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전라북도, 무주군 등 관련 부처로 송부 할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 동부권 식품산업 활성화 대토론회 개최

무주군은 최근 안성면 무주천미연구센터 1층 세미나실에서 무주군 동부권 식품산업 육성사업(천마클러스터사업) 추진방향 대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무주군이 주관하고 (사)무주천미사업단(단장 유찬주)이 주최한 것으로, 무주군과 천마사업단, 무주농협 관계자를 비롯한 전북대학교 장동현 교수, 지역농업네트워크 최문식 이사장, 팜넷 배현우 전북 본부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2018년 유동주군 개신사업 완료 보고를 시작으로 무주천마클러스터 사업 추진성과를 공유하고 3단계 추진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 김충성 소장은 "2011년부터 천마클러스터사업에 투자 해 천미연구센터 건립과 육성자마 생산, 기능성 식품 연구, 천마가공품 개발, 가공시설 구축, 통합홍보 등을 추진하여 왔다"라며 "그간의 성과를 기반으로 천마가 무주군 농업발전을

주도하는 특화작물로서 제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더욱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부권 식품클러스터 육성사업은 천마 관련 특화품목을 지원해 무주 대표 농·특산물을 육성하는 것으로 지난 2010년부터 2017년까지 1~2기 사업이 완료됐으며 현재 3기 사업(2018~2020)이 추진 중이다. 사업비는 136억 원의 국·도비를 포함해 총 167억여 원으로 제품개발과 유통 마케팅, 가공설비 현대화, 체험시설 및 프로그램 개발 등에 투입되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2018년 천마재배 성공률을 기존 30% 수준에서 50%로 향상시켰으며, 자체 생산한 우량유성자마를 최초로 농가에 보급하는데 성공했다. 또 천마의 유성자마 증식방법 등 14건의 특허를 등록했으며 일반 '마'와 '천마'의 차별성을 홍보해 천마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등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해왔다. /무주=전문선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